# 진우 스님 "K-명상 개발…禪 대중화"

**2월 8일 국회 정각회 법회서 밝혀**
**"한국 정신문화 바로 세우는 불사"**
**'천년을 세우다' 사업 필요성 강조**
**이원욱 명예회장에 공로패 수여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월 8일 봉행된 국회 정각회 신년법회에서 사부대중이 삼귀의례를 하고 있다.

"참선, 명상 전문가들과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 현재 4차례 정도 진행한 상황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편안해질 수 있는 K-명상을 개발해 대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진우 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이 참선 대중화를 위한 표준 명상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약속했다.

국회 정각회(회장 주호영)는 2월 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신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진우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무원 스님(천태종), 차석부회장 도진 정사(진각종), 부회장 법명 스님(관음종), 호명 스님(태고종), 우인 정사(총지종), 만청 스님(대각종) 등 종단협 회장단과 조계종 총무부장 호산·기획실장 성화·재무부장 우하·사회부장 범종 스님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이원욱 명예회장, 이현승 수석부회장, 이수진 간사, 서영교 의원, 조명희 의원, 김병주 의원 등이 자리했다.

신년법회 법사로 나선 진우 스님은 법문을 통해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천년을 세우다' 불사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스님은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는 "쓰러진 한민족의 얼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불사"라고 강조했으며 명상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은 국민들의 심신 안정과 치유에 큰 도움을 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진우 스님은 "서구 유럽에서는 명상 프로그램 수업을 신청하며 6개월에서 1년은 대기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위빠사나, 사마타와 같은 남방불교의 수행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더 훌륭한 참선이라는 수행법이 있다"면서 "참선을 바탕으로 한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템플스테이와 향후 건립될 명상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이라고 하듯이 내 마음이 편안해져야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도 활해져 국민들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서 "정각회원들과 동료 국회의원들도 명상을 통해 스스로 편안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든 시기"라며 "오늘 법회를 정각회원들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게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법회에서 사부대중은 이수진 간사가 대표 낭독한 발원문을 통해 세상이 편안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기를 기원했다. 대중들은 "비우고 바꾸고 살리는 삶으로 기후환경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을 찾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한편, 국회 정각회는 전반기 회장으로 단체 발전을 위해 노력한 이원욱 명예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불교계, 튀르키예·시리아 강진에 십시일반

**아름다운동행 3월 31일까지 모연**
**조계종복지재단, 온라인 모금 나서**
**더프라미스·나누며하나되기 등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강진으로 1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에서 애도의 뜻을 전하며 긴급모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앞서 2월 6일 현지시각 오전 4시 17분경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북부 국경지역에서 진도 7.8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어 여진이 뒤따르며 강진 나흘째인 2월 9일 사망자수는 1만 239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가 2만 명을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고, 미국 지진 지질조사국(USGS)는 10만 명 이상이 될 가능성도 14%에 이른다고 추정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애도 메시지와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긴급구호대원을 급파한 상태다.

불교계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피해 지원을 위한 긴급 모연을 시작했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조계종 총무원장)은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모금 캠페인을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한 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튀르키예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를 하고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재단법인 아름다운동행 상임이사 일화 스님은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후원 동참을 희망하는 개인과 사찰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www.dreaminus.org)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02)737-9595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는 재단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산하시설 종사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금을 모연 중에 있다. 모연은 3월 9일까지 진행되며 추후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고려해 전달할 예정이다.

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대형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면서 전 세계에서 애도를 표하고 있다. 서로 얼굴을 붉히던 국가들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면서 "종교를 넘어 튀르키예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형제의 나라다. 재단은 조계종단과 협의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하루빨리 폐허된 나라가 재건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기원했다. 02)723-5101 (하나은행 271-910006-64104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국제협력단체 더프라미스**(이사장 법보)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재난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구호 모금을 시작했다.

더프라미스 이사 묘장스님은 2월 7일 "91%가 원조에 의지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지역의 재난 피해자들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더프라미스는 2017년 만해대상 평화대상에 선정되었던 화이트헬멧(Syria Civil Defence. 시리아 시민방위대)을 통해 더욱 지원이 필요한 시리아 북서부에 긴급 지원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시리아 북서부는 10년 이상의 내전과 반군의 통제로 낙후된 시설이 많아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리아 보건부는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지역의 사망자를 711명, 부상자를 1431명으로 집계했다. 화이트헬멧(Syria Civil Defence. 시리아 시민방위대)은 반군 통제 지역에서 최소 733명이 사망하고 2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에 더프라미스는 시리아 북서부 재난 피해자들을 긴급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은 시리아 내전 구호단체 시리아 시민 방위대를 통해하며, 사회적기업 ㈜착한여행(대표 나효우)과 헬프시리아가 파트너 기관으로 함께 한다. 02)735-3119 (하나은행 105-890053-47604 사단법인더프라미스. 후원하기 링크: https://bit.ly/3Y6NaSo)

**천태종 산하 NGO 나누며하나되기**도 종단과 함께 긴급구호 성금 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2월 28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모금에 대해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받는 피해 유가족 및 이재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돕기 위한 성금 모금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천태종은 각 사찰에 '지진 피해 성금 모금함'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02)730-2401 (우리은행 1006-401-385960 나누며하나되기)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 '보물' 범어사 대웅전, 그 면면을 살피다

**범어사 성보博 '범어사 대웅전' 학술도록 발간**

**전문가 논고, 고화질 사진 구성**
**건축사적 의미, 가치 등 조명해**




금정총림 범어사 대웅전은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부산을 대표하는 목조건축물이다. 이런 범어사 대웅전의 면면을 학술적으로 조명한 도록이 발간됐다.

범어사 성보박물관(관장 환응)은 "범어사 대웅전을 주제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첫 학술도록 〈불국토를 조각하다, 범어사 대웅전〉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록은 "기단과 기둥, 공포, 창호, 천장과 닫집, 수미단, 수미단 위에 모셔진 불상, 내·외부 단청과 벽화까지 범어사 대웅전의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 부처님의 나라 '불국토'를 이루고 있다"는 관점에서 기획됐다.

도록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미술학부 교수이자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목조각장 청원 스님의 특별기고문을 통해 전통과 현대란 무엇인가, 부처님의 세상, 현세의 불국토는 어디인가를 질문하며 시작한다. 본문에서는 범어사 대웅전에 대한 주제별 학술 논고, 고화질 사진들이 수록됐다.

1부 '대웅전, 불국토를 재현하다'에서는 사찰의 주불전으로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시는 대웅전의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관련 논고는 서치상 부산대 건축학과 명예교수가 썼다.

2부 '천개, 부처의 머리 위 천상을 표현하다'에서는 최춘욱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이 범어사 대웅전 내부 천장과 천개 등을 불교 공예사적 관점에서 풀어냈다. 이선용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16세기에 처음 등장한 이후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조선시대 목조건축의 범자 수용 양상을 1658년이라는 정확한 중수연대를 가진 범어사 대웅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밝혔다.

3부 '불단, 부처가 앉은 사리, 부처를 모시다'에서는 송은석 동국대 WISE캠퍼스 고고미술사학과교수와 허상호 성보문화재연구원 총괄팀장의 논고를 통해 범어사 대웅전에 봉안된 불상과 불상을 모시는 불단, 수미단을 살폈다.

범어사 성보박물관장 환응 스님은 "평소에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이자 시민들과 매우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문화재인 '범어사 대웅전'을 주제로 부산 불교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후속 연구가 이어져 향후 범어사 대웅전의 국보 승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 성보박물관에서는 2018년 〈범어사의 전적〉을 시작으로 신축기념 소장유물 도록 시리즈 〈범어사의 전각〉(2019), 〈범어사의 불화〉(2020), 〈범어사의 불상〉(2021)을 매년 발간해 왔다.

신성민 기자

# 조계종 기획국장 금오·홍보국장 인월 스님

**진우 스님, 2월 7일 임명장 수여**


금오 스님


인월 스님

조계종 기획국장에 금오 스님, 홍보국장에 인월 스님이 임명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2월 7일 기획실 기획국장 금오 스님, 홍보국장 인월 스님에게 각각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기획실은 종단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니 종단 발전을 위해 업무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두 스님은 "막중한 업무를 맡은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답했다.

기획국장 금오 스님은 심우 스님을 은사로 2007년 수계(사미계)했으며,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현재 금봉암 주지를 맡고 있다.

기획실 홍보국장 인월 스님은 지안 스님을 은사로 2005년 수계(사미계)했으며, 호국기룡사 주지, 해원사 주지, 대만 홍법원 주지를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